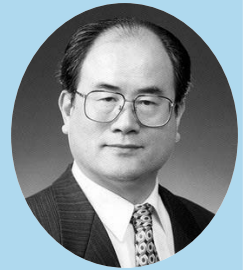


# 新年辭



회장 이 홍 지

존경하는 안전관계자 여러분  
2003년 계미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금년은 국민이 선택한 새로운 정부에 기대하는 부푼 마음과 희망으로 온 국민이 새해 벽두부터  
힘찬 도약을 위해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해 저희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안전관계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  
어, 우리나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최근 산업사회 현상이 날로 첨단화, 자동화되면서 예측불허의 각종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사업장의 생산력 증대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해외안전기관과의 안전업무 협력, IT  
시대에 부합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표준화된 국제 안전 심사 인증 업무 등을 계속 발전시키는 한  
편, 무재해 운동을 민간 주도의 자율체제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사업장에서 큰 호응을 얻  
었습니다.

그 예로 영국의 안전인증기관인 BSI와의 업무협약 일환으로 OHSAS 18001 인증 심사 업무를 개  
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안전분야의 서비스 시장에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중국의 북경 중  
양 안전기구, 천진, 청도 등의 자치성 안전기구와 재해예방업무를 협약했을 뿐만 아니라, 심양의 안  
전기구와는 안전 인증업무의 공동 수행을 검토 중에 있으며, 베트남과는 작년 4월에 중앙 안전기구  
와 기술협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자재의 최신장비화와 HHA를 이용한 자체검사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탄탄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건설 안전진단, 점검분야는 방송미디어센터와 다중 이용시설물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해 진단·점검을 실시해 가장 권위있고 믿을 수 있는 종합진단전문기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 월간지인 “안전기술”은 안전전문잡지로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중국 중앙 안전  
기구와 청도의 업무협약기구의 요청으로 매월 발송하고 있으며, 최신 안전기술도입과 협력사업추  
진, 자료 교환 등을 위해 순수 민간 안전보건단체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유일한 안전보건  
기구인 APOSHO에서도 가입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협회는 산업사회가 안전에 관해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힘을 보탬  
것이며 사업장의 무재해 운동에도 적극 동참해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관계자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저희 협회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각 사업장들이 무재해가 되도록 축  
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